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예고:**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정책 당회:** 내년 교회 사역 준비를 위한 정책 당회가 23일(토) 오후 6시 30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 **음악회:**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예배는 교민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음악 연주회로 드립니다. (주제: One in Music, 주관: 2남 선교회)
- ◎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맞이를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공동체는 힘써주시고, 공동체별로 참가 인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앙 서적인 천로역정 (존 번연 지음)을 읽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천로역정'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 ◎ **총회:** 2014년 교회를 섬길 각 선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12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 ◎ **섬김:** 2014년도 교회의 여러 부분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교사, 차량안내, 주방 봉사, 인도자, 공동체장, 중보기도자, 예배안내 등)
- ◎ **훈련:** 2013년 청년 코스타가 19일(화)~22일(금)까지 해밀턴 와이카토 대학에서 있습니다. 주제: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하는 복음(요한복음 8:36)
- ◎ **모임:** 권사 모임이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새벽 기도회 본문

- 1일: 고전 6:1~11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8일: 고전 9:1~12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 15일: 고전 11:17~26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22일: 고전 14:13~25 깨닫고 전하는 말이 더 유익합니다
- 29일: 고전 16:1~12 나눔과 동역으로 세워지는 교회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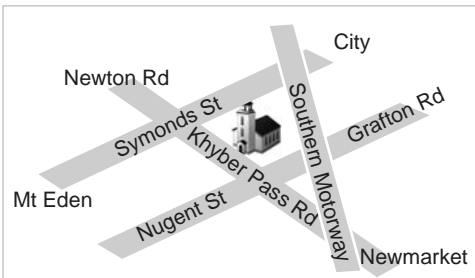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11월 17일

15권 46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경로 재설정

그렇게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어느 나라에 견주어 길 찾기가 얼마나 수월한가요? 지도책 한 권만 있으면 아무리 후미진 곳이라도 쉽사리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더욱이 요즘은 웬만한 스마트 폰에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저께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심방을 가면서 길을 잘못 들어 고생을 하다가 '경로 재설정'이라는 네비게이션의 음성에서 겨우 목적지를 찾았으니 길치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로를 재설정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흑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이리저리 자르며 능숙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정글과 더위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 가는 거요? 길이 있기는 있는 거요?"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탐험가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내 삶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언제 이 형편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환란의 끝이 있기는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힌트는 주실지 몰라도 그게 전부입니다. 하기가, 하나님이 설명하신다고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힌트보다 정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탐험가처럼 우리는 인생의 정글,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정답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완전한 네비게이션입니다. 그분과 함께 경로를 재설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 이태한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99:5~6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9장 다함께
※ 성서교독	62. 시편 143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0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덕철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9:20~27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말씀의 다스림 이태한목사
찬송	43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남수민 자매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최희숙 집사
성경 / 왕하 22:8~13
설교 / 듣지도 행하지도
/ 심창진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59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책 당회, 음악회, 성탄, 수련회 준비가 은혜롭게 잘 준비가 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비자와 비즈니스, 그리고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충만함이 있도록.

2. 뉴질랜드와 필리핀을 위해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사회 풍조가 사라지고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와 판단으로 태풍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 힘이 생겨나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 대하여 (경제를 중심으로)

최대 풍속 397km, 사망 및 실종자 2400여 명, 유엔 집계 4660여 명, 이재민 60만 명

지난주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피해 실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리핀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들이 재난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80개의 지방, 7,250개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큰 섬은 수도 마닐라가 속해 있는 북부의 루손 섬과 남부의 민다나오 섬입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타클로반(2차 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상륙 작전이 있었던 곳, 1944년 10월 21일 맥아더 장군이 타클로반을 점령한 후 마닐라가 탈환 될 때까지 임시 수도, ‘맥아더 공원’ 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음,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 이멜다의 고향)은 ‘레이페 섬’의 수도입니다. 75% 이상이 산악지역이며 파괴적인 태풍이 잦습니다. 공용어로는 따갈로어가 바탕이 된 필리핀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농업과 공업의 혼합 경제라 할 수 있으며 높은 인구 증가와 만연한 부패로 발전속도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자율성이 없습니다. 사회, 정치적 불안 요소는 늘 있으며 두 차례의 게릴라전과 수차례의 자연재해는 경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빈곤과 실업이 항상 있습니다. 1992년 미군기지의 폐쇄와 더불어 통제 불가능한 범죄와 일련의 납치 사건 등으로 각국의 원조가 끊기고 외국의 투자가 금지되면서 경제 회복은 힘들며 특히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연약한 필리핀 경제를 더욱 퇴보시켰습니다. 32~50% 정도의 국민이 최저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11월 교회알지

월삭 기도회:
11월 1일(금)
항존직분자 기도회:
11월 10일(주일)
성서주일:
11월 10일(주일)
음악회:
11월 27일(수)
청년부 주관 기도회:
11월 29일(금)

◎ 1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최득수/오지영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정혜숙 권사
다음 주일: 박일영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
11월 27일 수요일: 김은희 집사
11월 27일 애찬: 오지영 권사
12월 1일 주일: 이규임 권사
12월 1일 청년부: 박일영 장로